

# 창업자의 다중지능 영역별 발달 특성이 창업 행동 및 창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선희\*

연세대학교 정경창업대학원 석사과정

## 국 문 요 약

다중지능은 하워드 가드너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능이 단일한 지적 능력을 나타내는 구조(construct)이라기 보다는 다차원적인 복수의 하위 능력들로 구성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Gardner는 다중지능의 구성을 음악지능이나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자연친화지능 등과 같은 상호독립적 능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개인은 각 능력 영역에서 다른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창업자의 다중지능의 영역별 발달 특성이 창업 실행 행동, 창업 분야, 창업 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본인의 적성과 재능에 적합한 분야에서의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돕는 지도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향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구성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200인을 대상으로 다중지능검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창업 특성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Pearson 상관계수 및 다변량분산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의 3가지이다.

가설 1. 창업자의 다중지능 영역별 발달 수준과 창업 실행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창업자의 다중지능 영역별 발달 수준에 따라 창업자가 선택한 창업 분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창업자의 다중지능 영역별 발달 수준에 따라 창업자의 창업 성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핵심주제어 : 다중지능, 창업행동, 창업분야선택, 창업성과만족도, 창업자특성, 진로탐색, 창업교육

## I 서론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의 지능지수(IQ)가 높다는 정보를 들으면 그 사람의 학업성취도 역시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 누군가의 창업 성공 가능성을 예측할 때, 그 창업자의 지능지수나 고교 또는 대학 학업 성취도를 보고 그 창업자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창업 성공 가능성을 넘겨짚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20세기 중반 이후의 지능 이론 연구가들은 지능지수라는 것이 단일의 요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영역의 지능을 높게 가졌는지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 역시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Gardner가 다중지능이론이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다중지능이론은 지능이

하나의 지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지능이나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그리고 자연친화지능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 개인은 각 능력 영역에서 서로 다른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에서 수리와 과학 과목의 성취도에서는 논리수학지능이나 자기성찰지능이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고교 음악 실기 수업에서는 음악 지능이 더욱 더 높게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중지능이론에서는 인생에서의 성공은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도에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는 한 가지 지능 영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와 주어진 환경과 개인이 가진 영역별 지능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점에 착안하여 창업자가 가진 다중 지능 영역별 발달 수준이 창업자의 창업 실행 및 창업 영역, 창업 후 초기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본 연구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지능 이론의 발달

프랑스의 심리학자 Binet는 1904년에 프랑스 교육부로부터 초등학교 아동들 중 중학교 학습 과정에서 실패할 위험성이 있는 아동을 구분해내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 요청을 받은 것을 계기로 최초의 지능검사인 비네-시몽 검사를 제작하였다. 이후 ‘지능’의 발달 수준이 비네-시몽 검사에서 제시된 지능지수, 즉 IQ (Intelligence Quotient)로 객관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비네-시몽 검사에서 제시되는 지능지수는 ‘정신연령÷생활연령×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나, 이후의 연구자들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의 요소나 수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Spearman은 최초로 지능 2요인설을 제시하였으며, 지능을 일반요인 G (General factor)과 특수요인 S (Specific factor)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요인은 인간의 모든 지적인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추론 능력이며, 특수요인은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만 포함되는 구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Spearman은 인간의 지능은 특수요인보다는 일반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일반지능은 객관적으로 결정되고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Spearman의 지능 2요인설 역시 많은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비판받았다. Thurstone은 다수의 지능검사를 요인분석한 결과를 통해 지능은 Spearman이 주장한 것처럼 일반요인과 특수요인과 같은 1~2개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된 있는 7가지의 요인(언어 요인, 수요인, 공간관계, 기억력, 지각속도, 언어유창성, 추리력)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증명하였으며, 이 요인들을 ‘기본정신능력 (Primary Mental Abilities)’이라 불렀다.

Guilford는 지능의 요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 Thurstone의 이론을 정교화하여, 지능을 조작 (operations), 내용 (contents) 그리고 산출 (products)의 차원이 결합된 3차원의 것으로 보는 지능구조모형 (Structure of Intellect; SI)을 제시하였다. Guilford는 지능을 5개의 조작차원(평가

적사고, 수렴적사고, 확산적사고, 기억, 인지), 4개의 내용차원(도형·기호·언어·행동), 6개의 결과차원(단위, 유목, 관계, 체계화, 전환, 함의)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이 결합된 120개의 지능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를 각각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하우동설, 2011).

Cattel은 Spearman이 제시한 일반요인을 후천적 경험이나 교육과는 무관한 유동성지능과 문화적 지식과 경험, 기능을 포함하는 결정성지능으로 분류하였다. Cattel은 유동성지능은 14~15세 경에 절정에 이른 후,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보았던 반면, 결정성지능은 연령이 높아지며 함께 계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았다.

Sternberg는 지능을 “인간이 그의 삶과 연관된 실제 환경에 의도적으로 적응할 목적으로 선택하고 조성하는 정신적 활동”(mental activity directed toward purposive adaptation to, selection and shaping of, real-world environments relevant to one's life)이라고 정의하였다(Sternberg, 1985, p.45). 그는 지능이 분석적 지능, 창의적 지능, 실용적 지능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지능 삼원 이론 (triarchic theory of intelligence)을 주장하였다.

Gardner 역시 Sternberg와 마찬가지로 Spearman이 제시한 일반요인과 단일차원에서 측정된 지능지수(IQ)를 비판하며, 인간의 지능은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닌 여러 독립적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은 각 지능 영역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Gardner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외에도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인간친화지능, 공간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에 지능지수(IQ)가 낮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높은 지능을 활용하여 인생에서 다른 방식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Gardner는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등을 지능의 영역에 포함함으로써 감정이 지능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임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alovey & Mayer는 Gardner의 다중지능 영역 중 인간친화지능과 자기성찰지능을 기초로 하여 ‘감성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는데, 후에 이 개념은 주로 ‘Emotional Quotient (EQ)’라고 불리우며 IQ와 대비되어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지, 조절 및 활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서로 다른 능력을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하는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지능 이론의 발달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단 하나의 요소로 결정된다는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받아 형성 및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면성을 인정하고 이를 체계적

으로 측정해야 함을 주장하는 계속적인 시도로부터 그 동력을 얻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2.2 다중지능 이론

### 2.2.1 다중지능 이론 대두의 배경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의 교수이기도 한 Gardner는 비네-시몽 검사에서 제시하는 지능지수(IQ)와 Spearman의 지능2요인설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Gardner는 인간의 지능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으로 구성되며, 각 능력의 상대적인 중요도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또한 Gardner는 지능을 "한 문화 또는 그 이상의 문화에서 가치있다고 여겨지게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An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solve problems, or to create products, that are a valued within one or more cultural settings.)(Gardner, 1983; 1993)이라 정의하며, 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의 영향이라고 강조하였다.

### 2.2.2 다중지능이론의 가정

Gardner는 지능을 객관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가정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능은 두뇌의 특정 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즉, 두뇌가 손상되면 그 능력이 없어지거나 제한적으로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좌뇌를 다쳤다고 하더라도 우뇌의 기능이 정상적인 것이 그 예이다.

둘째, 각 지능은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한 지능은 다른 지능의 예측이나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지능은 분별이 가능한 일련의 지능 작동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넷째, 지능은 기초 수준에서부터 전문가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지능은 역사적으로 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지능은 실험연구 또는 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일곱째, 지능은 다른 행동과학으로부터 얻어진 심리측정 결과와 일정 수준 일치해야 한다.

여덟째, 지능은 숫자, 그림, 단어 등처럼 기호화(encoding)가 가능해야 한다.

### 2.2.3 다중 지능의 영역

Gardner는 인간의 지능을 다음의 8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Gardner, 1993; 윤인리, 2004).

#### 2.2.3.1 음악 지능(musical intelligence)

음악 지능은 감정을 음악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며 소리의 특질(높낮이, 리듬, 멜로디, 음색 등)에 반응하고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음악 지능은 지휘자, 작곡가, 연주자, 음향기술자, 음향학자 등에게 높게 나타난다. 음악 지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리듬패턴 연습, 작곡이나 편곡, 연주, 노래, 공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 2.2.3.2 신체운동 지능(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이 지능은 몸을 이용해서 생각 또는 감정을 표현하고, 사물을 생산하거나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사람은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만져 보기를 좋아하며, 몸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신체적 활동을 잘하며, 도구를 기술적으로 다루는 일에도 능숙하다.

신체운동 지능은 무용가, 운동선수, 의사, 발명가, 기술자들에게 높게 나타난다.

#### 2.2.3.3 논리수학 지능(logical/mathematical intelligence)

연역적 또는 귀납적 사고를 잘 하는 능력, 수학적 계산을 하거나 사물 간의 논리성을 구성하는 추리능력, 추상적인 패턴과 관계들에 대한 인식능력 등이 포함된다.

논리수학지능은 회계사, 수학자, 공학자, 과학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정분석자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 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부호해독, 삼단 논법 연습, 추상적 공식 풀기, 도표 구조화, 수열계산 등이 있다.

#### 2.2.3.4 시각공간 지능(visual/spatial intelligence)

공간, 색깔, 모양, 형태 등의 관계를 잘 파악하며 3차원적 공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배열 및 재편성하기를 좋아한다.

이 지능은 외과의사, 바둑기사, 건축가, 탐험가, 지질학자 등에게 높게 나타난다. 시각공간 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색채배합, 그림, 항해, 지도제작, 상상력, 데생, 사진 찍기 등이 있다.

#### 2.2.3.5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언어지능이란 언어를 구사하고 말의 리듬, 순서, 뉘앙스나 의미에 대한 이해 능력과 표현능력을 의미한다.

높은 언어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나 이야기 만들기를 즐겨하며 글쓰기를 좋아한다. 장소, 이름과 낱자 등을 잘 외우는 사람들은 언어지능이 뛰어난 가능성이 높다.

언어 지능은 시인, 소설가, 변호사, 웅변가, 기자 등에게

높게 나타나며, 언어적 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토론, 유크 및 농담, 공식 연설, 일기, 창작, 스토리텔링 등이 있다.

#### 2.2.3.6 인간친화 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대인관계 지능이라고도 불리는 인간친화 지능은 타인의 마음, 감정을 잘 이해하여 타인과 조화로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대인관계 지능은 정치 또는 종교 지도자, 교사, 상담가 등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난다. 이 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타인의 감정 이해, 피드백 주고받기, 협력학습 등이 있다.

#### 2.2.3.7 자기성찰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이 지능은 자신의 감정, 컨디션, 행동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잘 파악 및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조언가나 철학자 등에서 높게 관찰된다. 자기성찰 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사고전략 연습, 반성적 사고, 메타인지 기술 등이 있다.

#### 2.2.3.8 자연친화 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자연친화 지능은 생물을 포함하여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친화 지능은 원예가, 과학자, 사육사, 동식물학자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자연친화 지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동식물 관찰하기, 정원 돌보기, 동물 기르기, 기후 변화 조사하기 등이 도움이 된다.

### III. 연구 방법 및 가설 설정

다중지능의 영역별 발달 특성이 창업 실행 행동, 창업 분야, 창업 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8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 200인을 대상으로 다중지능검사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창업 특성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Pearson 상관계수 및 다변량분산분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의 3가지이다.

**가설 1. 창업자의 다중지능 영역별 발달 수준과 창업 실행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창업자의 다중지능 영역별 발달 수준에 따라 창업자가 선택한 창업 분야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창업자의 다중지능 영역별 발달 수준에 따라 창업자의 창업 성과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창업자의 다중지능의 영역별 발달 특성이 창업 실행 행동, 창업 분야, 창업 성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본인의 적성과 재능에 적합한 분야에서의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돕는 지도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향후 창업가 육성 프로그램의 구성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의 대상이 초기 창업 단계에 있는 청년 창업자에게 국한된다는 점에서 전체 창업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창업 지속 기간 및 창업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대한 변수를 추가 조사 및 분석하여 다중지능의 영역별 발달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고 더욱 심층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윤인리(2004).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창의성 및 학업성취도와 의 관계*, 석사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춘경외공저(2016). *상담학사전*, 서울: 학지사.
- 하우동설(2011). *교육학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한국심리학회(2014). *한국심리학용어사전*, 서울: 한국심리학회.
- Sternberg, R. J.(1985). *Beyond IQ: A Triarchic Theory of Human Intellig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s: The theory in practice*. NY: Basic Books.